

2026년 5월 13일

Macro Snapshot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Economist 김유미

키움증권

예상 웃돈 미국 CPI, 다시 커진 인플레이션 경계감

미국 4월 CPI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발표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강화되었다. 특히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물가 관련 불확실성도 더욱 확대된 상황이다. 전체 CPI(헤드라인)는 전월 대비 0.6% 상승했으며, 전년동월 대비로는 3.8% 상승했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3.7%)와 지난 3월 수치(3.3%)를 모두 웃도는 수준으로, 2023년 5월 이후 약 3년 만의 최고치다. 근원 CPI(식품-에너지 제외) 역시 전월 대비 0.4%, 전년동월 대비 2.8%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특히 전월(2.6%) 대비 상승 폭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물가 압력이 다시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가격 급등이었다. 에너지 부문은 전월 대비 3.8%, 전년동월 대비 17.9% 상승했으며, 특히 휘발유 가격은 한 달 동안 5.4% 상승해 전년동월 대비 28.4% 급등했다. 연료유 가격 역시 전년 대비 54% 이상 상승하는 등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주거비 역시 전월 대비 0.6% 상승하며 전월(0.3%)보다 오름폭이 확대되었고, 높은 수준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에너지 가격 충격이 주요 동인이기는 하지만, 근원 CPI마저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격 압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팬데믹 당시와 같이 임금 상승 압력이 빠르게 확대되며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차 가속화될 가능성은 아직 제한적이다. 구인율 하락 추세와 시간당 임금 상승률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중동 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찾는다면 인플레이션 경계감 역시 점차 완화될 여지가 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UAE)의 OPEC 탈퇴 이후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국제유가의 하향 안정화도 기대해볼 수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와 이에 따른 국제유가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지정학적 리스크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경우 인플레이션 부담 역시 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미국 물가 지표 발표 이후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상당 부분 후퇴하는 모습이다. 특히 2026년 내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거나 인하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반영되면서 'Higher for Longer(고금리 장기화)' 기조가 다시 강화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을 높게 보기는 어렵지만, 5월 연준 의장 교체 이슈와 맞물리며 단기적으로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시장금리 변동성 역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

Macro Snapshot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